

# 古代儒家의 形而上學과 道德哲學에 근거한 孟子의 理念에 대한 論考

이 규 성

## 들어가는 말

이 글은 孟子의 理念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지는 것이다. 단 그의 政治哲學은 주제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아니하고, 形而上學과 道德哲學을 중심으로 한 그의 理念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그의 철학을 古代의 다른 儒家哲學들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체계로 보고서 孟子의 理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古代의 儒家哲學을 그가 自己의 哲學으로서 체득·발전시켰다는 의미에서만 그 말은 의미를 가진다.

現實的인 삶의 내면적인 繫張과 衝動은 현실적인 삶 그 자체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성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한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모든 구속과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는 精神的 轉換의 方向, 즉 理念을 必要로 한다.

中國古代에서 儒家와 쌍벽을 이루었었다고도 볼 수 있는 道家의 理念은 현실적인 삶, 즉 사회적 문화적인 삶—변화하며 相對的인 삶—은 어떤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인간의 삶을 絶對的인 形而上學의 實在에 뿌리박게 하려고 하였다. 그 形而上學의 實在는 道라고 하는데, 그것의 본질적·특성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자신에게로 복귀시키는 冷嚴性이다. 그것은 相對의인 것들이 그것에 의해 生成되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根源이다. 人間의 최고의 삶은 有限에서 有限으로 浮動하는 生으로부터 그러한 道으로 復歸하는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에게 행복과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道家의 理念은 現實的인 삶에서도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理念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며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러나 儒家의 理念은 現實的인 삶에서도 인간의 행복과 자유 또는 인간의 인간적인 價值를 추구한다. 그리고 인간이 관계하고 궁극에 가서는合一하여야 할 道의 본질적 특성은 萬物을 부단히 生成시키는 仁慈함이다. 인간은, 이

## 哲學論究

렇게 生成과 仁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道에 근거하면서도, 사회적 문화적인 현실의 삶에서도 價值에 있어서 人間답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孔子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儒家의 思想들을 종합하였다. 〈論語〉에만 입각하여 본다면 그는 現實的인 삶에서의 인간관계만을 강조하였지, 形而上學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은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倫理는 그 이전과 당시의 儒家의 形而上學을 전제로 하고 말해지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올바로 이끌 수 있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形而上學의 實在의 본질적 가치에서 추론된 것이다.

孟子의 理念은 자신이 말하듯이 孔子를 비롯한 여러 聖人們의 思想을 보다 論理的으로 계승한 것이다.<sup>1)</sup> 그는 孔子를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必要한 모든面을 갖춘 集大成의 聖人으로 보았다.<sup>2)</sup> 그러나 그는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고 그것과 투쟁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새로운 것을 발전시킴으로써 儒家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中庸을 상기시킬 만큼 形而上學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孟子〉라는 책의 서술양식은 論理的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며, 그의 여러 중요한 말들은 다른 古典에서 이미 말한 생각들을 전제로 하거나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理念을 이해하여 서술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古典들과 연관을 맺어 가면서 이해하고 서술해야 할 것이다.

### 1. 孟子의 時代現實

孟子의 理念은 그의 現實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現實的인 삶의 불합리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와 근본적 관계를 가지면서,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方向과 方針을 제시한다. 많은 그의 주장들은 구체적인 現實을 둘러싸고 말하여 진다. 그는 또 자신의 理念을 現實에 실현하려고 세상을 방랑하기도 하였다. 현실에서 나온 理念이라야, 그것은 理念으로 성립하며, 全件의인 실현은 아닐지라도 실현을 통하여 그것은 그 현실적인 기반과 내용과 生命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기 儒家의 哲學, 그 자체가 현실 안에서의 실천적인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의 理念을 서술하기에 앞서, 그의 理念을 하나의 理念으로서, 또 生命을 얻으려고 한 理念으로서 이해하기 위하여 孟子가 본 당시의 現實의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1) 孟子, 滕文公下 9.

2) " 萬章下 1.

## 古代儒家의 形而上學과 道德哲學에 근거한 孟子의 理念에 대한 論考

그가 살던 시대는 중앙정부인 周왕실이 통치권을 상실한지 오래인 戰國時代이었다. 해방의 時代이었으나 일대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였다.

<孟子>에 나타난 이 시대의 특징적인 樣相中에, 우선 戰爭을 들 수 있다.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義戰<sup>1)</sup>”에 있다. 이것은 虧政에 대한, 仁政을 行할 수 있고 行하는 者의 征討이다. 이것은 백성의 뜻에 의거하는 것이며, 天命에 의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霸道政治를 하는 “일개 하나의 사나이(一夫)<sup>2)</sup>”들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大國은 天下의 霸權을 얻으려 하고, 弱小한 나라는 생존투쟁을 해야 하였다. 膝나라의 膝文公은 자기 나라와 같은 小國은 大國을 섬겨도 압박을 면할 수가 없다고, 孟子에게 호소하면서 그 해결의 방안을 물었던 것이다.<sup>3)</sup>

전쟁은 경제적인 비참을 낳았다. 전쟁은 백성에게 兵役의 의무와 고율의 세금을 강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生業을 위한 時期를 잃어 버렸고, 가난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고, 풍년에도 내내 고생하고 흥년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며,<sup>4)</sup>”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죽은 시체들이 있게<sup>5)</sup> 된 것이다.

백성은 生活의 根據를 잃어버림으로해서, 精神的 根據도 상실하였다. 孟子는 人間은 本來的으로 善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人間은 또한 삶의 外的인 條件들에 의하여 쉽게 惡하게 되는 悲劇的 現實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백성의 삶의 방식이란 일정한 生活根據(恒產)가 있으면, 일정한 마음(恒心)을 가지나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실제로 일정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放蕩과 偏僻과 邪惡과 奢侈등 못하는 행동이 없게 된다<sup>6)</sup>”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을 그가 간과 했더라면 性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인간을 外的으로 규제하는 제도나 법률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亂世를 틈타서 방랑하는 정치외교가들이 많이 생겼다. 小國은 자신의 불안정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大國은 霸權을 얻기 위하여 인재들을 모아들였으며, 그들은 자신의 富貴와 榮達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세상을 더욱 혼란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 孟子는, 이들의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는 방

1) 孟子, 燾心下 2.

2) 孟子, 梁惠王下 8.

3) 孟子, 梁惠王下 15.

4) 孟子, 梁惠王上 5.

5) 孟子, 燾心下 9.

6) 孟子, 膝文公上 3.

## 哲學論究

식은 그들의 妻와 妾이 수치스러워해서 마당에서 서로 불들고 올만큼 爵子의 道를 벗어난 것이라고 批判하였다.<sup>7)</sup>

理念은 현실적인 삶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삶을 抠否함으로써 그 可能성을 지시해 주면서, 現實的인 制約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思想과의 對立으로도 나타난다. 思想의 통제력이 거세된 당시에는 많은 새로운 思想들이 나왔다. 이것들 가운데 孟子의 大敵은 楊朱와 墨翟의 思想이다. 이 두 사람의 思想을 대표하는 말이 〈孟子〉에 있다. “楊子는 自己만을 위하여 한오라기의 털을 뽑아서 天下가 利롭게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며, 墨子는 무차별하게 사랑함으로 이마가 뒷고 발꿈치가 해지더라도 天下가 利롭다면 그렇게 한다.”<sup>8)</sup> 楊朱는 사회 안에서의 실천적인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道家의 思想을 주장한다. 그러나 儒家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利己主義의이다. 그러나 儒家의 입장인, 修身이 社會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人間의 人間됨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주장과는 서로 충돌된다. 또한 무차별적인 사랑은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sup>9)</sup>의 입장과도 상충된다. 儒家는, 인간은 仁의 실현에 있어 「由近及遠」의 경로를 자연히 밟게 되며, 또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孟子는 이들의 思想의 위험함을 경고하며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한다. “楊朱와 墨翟의 주장이 天下에 가득 차 있다. 天下 사람들의 언론이 楊朱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墨翟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為我는 君王을 부인하는 것이며 墨翟의 兼愛는 어버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부인하고 君王을 부인하는 것은 人間을 禽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楊墨의 理論을 그치게 하고 孔子의 理論을 밟히지 않으면, 邪說이 백성을 기만하고 仁·義가 막히게 된다. 仁·義가 막히면 禽獸를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할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sup>10)</sup>

이상의 고찰에 의하여 孟子가 여러 측면에서 내다 본 당시의 현실이 얼마나 혼란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시대를 표현하여 “聖王不作, 諸侯放恣, 處士橫義”<sup>11)</sup> 한 마디로 말한다면 “世衰道微”<sup>12)</sup>의 時代라고 하였다.

7) 孟子, 離婣下 33.

8) 孟子, 売心上 26.

9) 孟子, 売心上 45.

10) 孟子, 滕文公下 9.

11) 同上.

12) 同上

## 2. 孟子의 철학하는 태도와 목적

「世衰道微」라는 말은 儒家의 다른 용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治統」과 「道統」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治統」과 「道統」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한갓 통치자가 아니라, 爵位이어야 하며 다스릴에는 항상 教育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爵位는 內的으로 심원하게 修身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통치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도 도덕적인 규범을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人道를 걸어야 한다. 그는 天道의 本質이며 自己의 本質인 仁을 世界에 擴充해야 한다. 그래야 그에게는 비로소 「王」이라는 호칭이 붙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亡者」다.<sup>1)</sup> 즉 그는 「內聖外王」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은 그의 仁의 發顯안에서 평화속에 삶을 영위하며, 教育에 의한 自己修身에 의하여 人間답게 되며 人倫을 밝힌다.平民일지라도 修身에 의하여 德이 있는 사람이 되면 大地와 더불어 現實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可能的君子이다. 그들의 德의 根據 역시 天道에 있다. 이와같이 君王과 백성과 天道는 서로 유지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존속하는 모든 것에 권리와 근거를 주는 보이지 않는 內的인 결속이 이루어지며, 外的으로는 아름다운 本質의인 文化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위와 같은 儒家의 理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世衰道微」의 시대이었다. 그는 이러한 現實이 던지는 문제를 자기문제화 한다. “天下를 平治하려 할진데 今世를 當하여 나를 제외하고 그 누가 하겠는가?<sup>2)</sup> 그는 현실안에서의 自己의 위치를 정립한다. “天이 人間을 널적에 先知로 하여금 後知를 깨우치게 하였으며 先覺으로 하여금 後覺을 깨우치게 하였다. 나는 天이 낸 人間들의 先覺者다. 나는 장차 이 道로써 이 人間들을 깨우친다.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sup>3)</sup>”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의 철학하는 태도를 무조건 보수적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儀官의 地方官이 孔子에 대해 “無道가 오래인 天下에 天이 장차 夫子를 木鐸으로 삼는다<sup>4)</sup>”고 말하였듯이 우리도 孟子를 현실의 人間들의 삶의 양식을 깨우쳐서 未來의 可能性을 보여주는 木鐸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나아간다면, 예측하기 조차 무서운 미래를

1) 書傳, 卷四, 仲虺之誥.

2) 孟子, 公孫丑下 13.

3) 孟子, 萬章上 7.

4) 論語, 八佾 24.

## 哲學論究

더듬으면서 현실을 변혁하려는思想家인 것이다. 그의理念 또한 인간의可  
能性에 대한 강한 희망과 인간성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가 스스로 말한 그의先覺者됨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先覺者로서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가思索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원래 유가의  
철학이 그러한 경향을 띠듯이 그에게도 순수한理論은 존재치 않는다.

“옛날에禹가洪水를 막아내니天下가平和로웠으며,周公이夷狄을兼拜  
하고猛獸를 몰아내니百姓이安寧하였으며,孔子가春秋를 지으니亂臣賊子  
들이 두려워하였다. ~ ~ 나도 역시正人心하며息邪說하고距詖行하며  
放淫辭하여三聖을 계승하고자 한다. 어찌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겠는가? 나  
는不得已해서그리는 것이다.”<sup>5)</sup>

### 3. 孟子哲學의 발전적인 면

(a) <孟子> 이외의 다른儒家의古典에서는人間本性的善함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말해지고 있으나,孔子는 그것은善하다고직접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즉 그는人間의本性은善하며,  
인간은善할 수 있고善해야 한다고적극 주장한다.

(b) 그는儒家의思想에 잠재되어 있는非功利의인면을보다명백히드러  
내었다.人間은本來로四端之德을 가지고있는데그것들을실현하는것은  
자신이나사회에有利해서그렇게하는것이아니라,그것은바로人間의人  
間됨을드러내는것이다. 행위의결과가문제가아니라인간의行爲가道  
德的일수있는條件은“盡於人心”<sup>1)</sup>인것이다. 이러한그의입장은墨翟과의  
對立(藤文公上 17 公孫丑下 8)에서反功利의으로나타난다. (c) 그는人間을  
人間學의인측면에서본다. 인간은小體와大體로구성되어있으며,그것들  
의기능은각각다르다. 어느쪽을따르느냐에따라人間들도가치에있어서  
上下의구별이생기게된다.儒家는人間은現實에서그가가지고있는여러  
능력들을충분히발휘할수있으며,발휘해야한다는人本主義의입장을취  
한다. 孟子는人間學을가지게됨으로해서儒家의人本主義를보다강화하  
였다.

(d) 그는과감한政治的理念을주장한다. 그는倫理的正名主義에입각하

5) 孟子, 藤文公下 9.

1) 孟子, 公孫丑下 8.

## 古代儒家의 形而上學과 道德哲學에 근거한 孟子의 理念에 대한 論考

여 廉政을 하는 王은 일개 하나의 사나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王은 王을 자기의 本質로서 받아들여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王은 물러나야 하며 백성은 그를 제거할 수 있다.

(e) <中庸>에서는 客觀的 實在論과 主觀的 觀念論이合一되는 철학이 서술되고 있다. 孟子는 <中庸>을 상기시키는 말들을 하고 있다. (離婁上12 盡心上4.13) 더욱이 그는 浩然之氣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처럼 思想을 인간의 主體의인 측면에서 더욱 강조한다.

### 4. 形而上學

孟子의 理念은 孔子를 비롯한 다른 儒家의 사상가들과 같이 形而上學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들의 최고의 理念과 實在는 天道이다. 그것은 多의 世界를 이끌며 조화지우는 根本原理다. 그것은 多의 총집합도 아니고 그 가운데의 하나의 사물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있는 超越的一者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多樣한 現象들을 그 根抵에서 生成시키기 때문에 靜的인 實在가 아니라, 그 자체 안에 運動因을 가지는, 內在의이면서 力動의인 實在이다. 一切의 現象들은 그것의 創造의인 作用에 의하여 부단히 生成變化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現象界는 生成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가지는 天道의 自己實現에 의해 변화하며 조화를 이루고 그 根據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그것의 自己實現의 끊임없는 契機는 誠이다. 그래서 孟子는 “誠者，天之道<sup>1)</sup>”라고 말한다. 이 말은 <中庸>에도 있다.<sup>2)</sup> 天道의 生成의 기능과 現象界의 부단한 生成發展과 항상된 조화는 바로 이 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誠者 物之終始，不誠，無物”<sup>3)</sup>이다.

이상에서 ‘天은 그것의 道때문에 天이다. 道는 天의 必要하고도 充分한 本質이다. 誠은 道의 本質이다.

現象界는, 그것이 誠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부단히 떠받혀지고 포용되고 있는만큼, 天道 만큼이나 實在性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결코 人間을 기반하는 환상계가 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인간을 괴롭히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면 그것과 투쟁을 해야하는 의미에

1) 孟子, 離婁上 12.

2) 中庸 20章 10.

3) 中庸 25章.

## 哲學論究

서의 外的인 實在性을 가지는 것도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人間과 共感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과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토대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天道에 대한 동경과 올바른 체득이 없이는, 그는 自然의 밖에 서게 될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吉凶)은 죽명적인 것이 아니라 天道와의 관계에 있어서 主體的 인간의 德의 有無에 좌우되는 것이다.

### 5. 人間의 문제

人間의 性은, 현상계의 근저에 內在하면서 그것들을 생성발전시키며 질서 지우는 天道로부터 賦與받고 있는 것이다. 性이란 事物이 天으로부터 賦與받은 것을 말한다. 부여받은 것은 바로 天道의 本質的 價值이다. 따라서 人間을 포함하며 모든 存在하는 것들은 그러한 價值로 관통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事物의 性과 天性과 人性은 그 價值에 있어서 같으며, 天道는 人間의 性의 영원한 形而上學的 根據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自己의 性을 自覺·實現할 수 있다. 〈中庸〉에서는 性을 아직 發顯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過·不及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中」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大學〉에서는 明德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自覺과 實現이 전제되어 있는 이 性은 人間을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지우며, 인간을 인간에게끔 하는 人間의 本質 또는 根據이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自由롭게 하는 個別의 人間性의 原理인 동시에 人間을 진정한 社會의 人 존재에게끔 하는 全體性의 原理이다.

그러나 인간은 性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心」도 가지고 있다. 儒家에서는 佛家의 生각과는 달리 「心」과 「性」은 다르다. 孟子도 “盡其心，知其性”<sup>1)</sup>이라고 말함으로써 「心」과 「性」을 다르게 생각한다. 「心」의 理性的 機能은 「思」다.<sup>2)</sup>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道德的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 그리고 「心」에는 私心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私心이 없는 「心」은 「赤子之心」<sup>3)</sup>이다. 孟子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心」을 「大體」라는 人間學의 용어로 표현한다.<sup>4)</sup> 인간이 「大體」를 따른다면, 「性」은 「心」을 「心」답게 할 수 있으며, 私心은 점차 제거된다. 「性」은 私心에 의해 가려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 孟子，盡心，上 1.

2) 孟子，告子，上 15.

3) 離婁，下 12.

4) 孟子，告子，上 15.

人間은 감각기관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孟子는 이것을 「小體」라고 한다.<sup>5)</sup> 인간은 이것을 통하여 外的인 世界와 관련을 맺는다. 일반적으로 「性」을 가리우는 것을 「人欲」이라고 한다. 「人欲」이 있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小體」에 따르는 것이 된다. 人欲은 인간을 外的인 것에 얹매이게 하고, 人間關係를 투쟁으로 이끄는 것으로서 장차 제거되어야 한다. 「小體」는 聖人이 된 後에 밟을 수 있는 것<sup>6)</sup>이지 現實的인 인간은 「人欲」 때문에 언제나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거해야 할 것은 「人欲」이지 「小體」가 아니다. 동물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小體없이는 인간은 인간일 수 없을 것이다. “小體역시 天性이다”<sup>7)</sup> 「小體」는 性이 발현되는 장소이며 인간의 美가 나타나는 장소이다. 「小體」는 우리가 君子의 內面의 德을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들 중의 중요한 것이다. “充實之謂美”<sup>8)</sup>라는 말과 더불어 〈大學〉의 “誠於中, 形於外”<sup>9)</sup>라는 말은 위와 같은 의미와 연관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6. 四端의 德

孟子는 人間의 本性에는 仁義禮智가 있다고 한다.

“人間은 모두 「不忍人六心」을 가지고 있다. 이 까닭은 사람은 爾子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누구나, 憂惕・惻隱之心을 가지기 때문이다”<sup>10)</sup> 이러한 感情은 利己主義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순수있고 무제약적으로 善한 感情이다. 그것은 “孺子의 父母와 內交하려고 나타낸 것도 아니며, 鄉黨朋友들에게서 칭찬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며, 구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싫어해서도 아니다”<sup>11)</sup>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自然스러운 感情을, 人間을 다른 것들과 구분지을 수 있게끔 하는 本質의 感情으로서 규정할 수가 있다. “惻隱之心이 없으면 非人이며 羞惡之心이 없으면 非人이며 辭讓之心이 없으면 非人이며 是非之心이 없으면 非人이다”<sup>12)</sup>

5) 孟子, 告子, 上 15.

6) 孟子, 羞恥, 上 38.

7) 同上.

8) 孟子, 羞恥, 下 25.

9) 大學 6章.

10) 孟子, 公孫丑, 上 6.

11) 同上.

12) 同上.

## 哲學論究

이러한 感情들은 모두 인간의 本性이 가지고 있는 仁義禮智가 發顯된 感情들이다. 그러므로 “惻隱之心，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之心，禮之端也，是非之智，之端也”<sup>4)</sup>다. 仁義禮智는 인간이 外部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本來로 자신의 内部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仁義禮智는 外部로부터 나에게 녹아드는(鑠) 것이 아니라, 내가 固有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 “仁義禮智는 根於心”<sup>6)</sup>이다. “인간이 이러한 四端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四體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sup>7)</sup>

이러한 價值들이 인간의 「心」에 內在하고 있는 만큼 이것들은 자각되고 實現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친정한 人間으로서의 人間의 위치에 서게 되며, 外部的인 모든 것들과의 관계는 조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人間은 그러한 原理로서의 가치들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않할 수도 있는 自由를 가진다. 그것들은 人間이 “求하면 얻어지는 것이며, 버리면 잃어버려지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人間은 그것들을 求할 수 있는 機能을 가진다. 「心」의 理性的 기능은 「思」다. 「思」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求하면 얻고 버리면 잃어버린다”<sup>9)</sup> 반대로 「思」가 없다면, 인간의 보편적 本質인 그러한 가치들은 영원히 망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思」는 인간의 自己本質 실현의 근본적인 條件으로서 内面的인 本質에 대한 自己省察의in 思惟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思」를 통하여 인간의 人間됨의 길이 마련된다. 그러므로 “四端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며, 그 王者을 일컬어 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를 해치는 것이다. 무릇 나에게 四端이 있으니, 그것을 擴充할 줄을 알면, 불이 타기 시작하며 샘이 솟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것이다. 진실로 그것을 擴充할 수 있으면, 족히 四海를 덮을 수 있으며, 擩充하지 않으면 진실로 父母를 섭기기에도 족하지 못할 것이다”<sup>10)</sup>

孟子는 인간의 본질적인 價值들을 「天爵」이라고 부른다. “天爵이 있고 人爵이 있다. 仁義忠信과 樂善을 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것은 天爵이며, 公卿大夫는 人爵이다. 古之人은 天爵을 닦으니 人爵이 자연히 따랐으나, 今之人은 天爵을 닦아 人爵을 求하고서 人爵을 이미 얻으면 天爵을 버리니 그 迷惑함이 甚하다. 결국 반드시 (제자신을) 亡하게 할 따름이다”<sup>11)</sup> 四端의 德은

4) 同上.

5) 孟子, 告子, 上 16.

6) 孟子, 懲心, 上 21.

7) 孟子, 公孫丑, 上 6.

8) 孟子, 告子, 上 6.

9) 同上.

10) 孟子, 公孫丑, 上 6.

11) 孟子, 告子, 上 16.

어떠한 것에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은 절대적인 목적이다.

## 7. 禽獸와 小人, 大人

儒家에서는 人間이 人間 이하로 타락했을 경우, 그런 인간을 禽獸와 비교한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道德性의 有無이다. 이러한 禽獸와 人間과의 구별은 孔子에게서도 명백히 드러난다.<sup>1)</sup>

孟子는 그러한 구별을 범주에 있어서 구별한다. “그렇다면 개의 性과 소의 性이 같으며, 소의 性이 인간의 性과 같다는 말인가?”<sup>2)</sup>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詩傳에서 말하기를 「天이 人間을 냄에 物마다 法則이 있다. 人間은 그의 항상된 法則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아름다운 德(懿德)을 좋아한다.」 하였는데, 孔子는 이詩를 지은 사람은 道를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sup>3)</sup> 인간은 보편적 본질로서의 「懿德」을 가지고 있다. 朱子는 이 글의 주석을 통하여 人性의 善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懿德」은 人間의 善한 「明德」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人欲」으로 因하여, 禽獸와 공통적 부분인 「小體」에 現實的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과 禽獸와의 차이는 近小한 것이다. “인간이 禽獸와 다른 점은 얼마 안된다. 보통 사람들은(本性을) 버리고 君子는 그것을 存養한다. 舜은 庶物에 밝고 人倫을 살폈으니, 仁義로 부터 쫓아 行한 것이지, 仁義를 억지로 行한 것은 아니다.”<sup>4)</sup> 仁義는 禮智와 더불어 인간의 본질적 德目들이다. 그것들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그것들을 버리고 存養하지 않으면, 그는 禽獸와 별 차이가 없다. “사람에게 있어 어찌 仁義之心이 없겠는가? 그 良心을 잊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과 같다. 매일매일 그것을 찍여 내서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런즉 禽獸에서 어긋남이 멀지 않다”<sup>5)</sup>”

禽獸와 차이가 멀지 않은 사람, 즉 그것과 공통적인 부분인 「小體」에 따르는 사람은 「小人」이다.<sup>6)</sup> 누구나 동일한 인간인데도 그렇게 저차원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있게 되는 이유는 물론 惡하고 기만적인, 당시에 있어서는 人欲의 체계인 時代의 現實에도 있을 것이다.<sup>7)</sup> 그러나 人間은 現實이 좋아도

1) 論語, 鄭玄 13.

2) 孟子, 告子, 上 3.

3) 孟子, 告子, 上 6.

4) 孟子, 離婁, 下 19.

5) 孟子, 告子, 上 8.

6) 孟子, 告子, 上 15.

7) 孟子, 滕文公上 3. 売心上 27.

## 哲學論究

君子이어야 하며 現實이 나빠도 君子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변화하는 歷史的 現實 위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나 심원한 內的 修養이 되어 있어야 한다.<sup>8)</sup> 그러므로 孟子는 인간의 그러한 存在性의 결여의 이유를 각 個人에게도 들린다.

우선 그의 人間學의側面에서의 해명을 알아 보자. 公都子는 묻는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大人이 되고 어떤 사람은 小人이 되니, 왜 그런가요?” 孟子는 대답하기를 “大體를 따르는 사람은 大人이며, 小體를 따르는 사람은 小人이다” 公都子는 다시 묻는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大體를 따로고, 어떤 사람은 小體를 따르니 왜 그런가요?” 孟子는 대답하기를 “耳目的 기능은 不思이기 때문에 物에 가리워진다. 耳目이 物과 만나면, 耳目은 物에 사로 잡히게 된다. 「心」의 기능은 思다. 思하면 懂고 不思하면 懂지 못한다. 이는 天이 나에게 준 것이니 먼저 大者를 확립하면, 小者は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이 大人이다.”<sup>9)</sup> 그는 또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貴한 것과 賤한 것이 있으며, 小와 大가 있다. 小로써 大를 해쳐서는 안 되며, 賤한 것으로써 貴한 것을 해쳐서는 안된다. 養其小者は 小人이며, 養其大者は 大人이다. 이제 植木하는 사람이 있어,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베리고 대추나무와 가시나무를 기르면, 그는 천박한 식목장이다. 또 손가락 한 개를 기르려고 어깨나 등을 잃어버리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제 몸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狼疾人)이다. 음식을 탐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 천박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小를 기름으로써 大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을 탐하더라도 大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口腹이 어찌 한갓 尺寸의 살만 찌게 하겠는가?”<sup>10)</sup>

인간이 小人으로 타락하는 이유는 그가 「從其小體」, 「養其小」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은 「천박한 식목장이(賤場師)이며 疾病든 여우가 뒤를 돌아보지 못하듯이 자신의 인간됨을 돌아보지 못하는 「狼疾人」이다. 그러므로 人間이 언제 어디서나 人間으로서 存在하기 위해서는 心의 기능인 「思」로써 「從其大體」, 「養其大」하여야 한다.

둘째로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해명을 알아보자. (a) 善한 本性에 대한 無知에 있다. “孔子는 「操則存하고 舍則亡이다. 패없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 故鄉을 알지 못하는 것은 「心」을 두고 말한 것인가?」라고 말한다.”<sup>11)</sup> (b) 그것을 「思」하지 않기 때문이다. “貴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만,

8) 孟子, 鑑心, 上 9, 同 21, 同 27.

9) 孟子, 告子, 上 15.

10) 孟子, 告子, 上 14.

11) 孟子, 告子, 上 8.

사람 사람이 자기에게 貴한 것이 있으나 惠하지 않을 따름이다”<sup>12)</sup> (c) 求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제 닭이나 개가 달아나면, 찾을 줄을 알지만 자기의 本心을 잊어버리고도 찾을 줄을 모른다.”<sup>13)</sup> (d) 그것은 기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르면 크지 않는 것이 없고, 기르지 않으면 시들지 않는 것이 없다.”<sup>14)</sup> (e) 부단한 노력의 결여에 있다. “이제 보리씨를 播種하고 흙을 덮어 주되, 땅이 같고 심는 때가 같으면 무력무력 자라나서 夏至에 이르면 모두 익는다. 그때 수확의 많고 적음은 보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비옥과 토박 雨露의 양분의 많고 적음, 농부의 정성이 일정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다.”<sup>15)</sup> “무슨 일을 하는 자는 비유하면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아홉길 을 팔더라도 샘물이 솟을 때까지 파지 않으면, 그 우물은 버린 것과 같다”<sup>16)</sup> (f) 自暴自棄 때문이다. “禮와 義를 비방하는 것은 自暴이며, 나는 居仁由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自棄다”<sup>17)</sup> (g) 內的 修養을 포기하고 자기의 밖에 있는 것을 求하기 때문이다. “求하더라도 益될이 없는 것은 在外者를 求하기 때문이다.”<sup>18)</sup>

以上과 같은 理由들에 의하여 인간은 禽獸와 가까운 小人이 된다. 그러므로 人間이 大人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들과는 반대의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을 구속하며 그를 인간답지 않게 만드는 小體나 人欲은 그를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넘어설 수 있는 條件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道德의인 存在가 될 수 없을 것이며, 儒家의 道德論은 허무맹랑한 것이 되며, 인간의 修養은 헛된 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存心」<sup>19)</sup> 「養成」<sup>20)</sup> 할 수 있는 존재이며, 理性的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大人)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보다 적극적인 표현은 「盡心」<sup>21)</sup>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本然의 善한 本性을 체득하자는 것(知其性)<sup>22)</sup>이다. 따라서 “學問의 길은 다른 것이 아

12) " 告子, 上 17.

13) " 告子, 上 11.

14) " 告子, 上 8.

15) " 告子, 上 7.

16) " 畫心, 上 29.

17) " 離婁, 上 10.

18) " 畫心, 上 3.

19) 孟子, 離婁, 下 28.

20) " 畫心, 上 1.

21) 孟子, 畫心, 上 1.

22) " 畫心, 上 1.

나라 「求其放心」일 뿐이다”<sup>23)</sup> 그러므로 “大人이란 「不失其赤子之心者」이다”<sup>24)</sup> 그런데 또 大人の 本性은 外的으로 發顯된다. 그러므로 “大人이란 「正己而物正者」이다”<sup>25)</sup>

그런데 개별적 인간의 性이 天으로부터 禀受받은 것이라면, 天과 性은 같은 原理이며, 개별적 인간이 자신의 性을 체득하면, 天을 체득하는 것이 된다. 인간의 모든 行爲는 天을 체득하는 경지(至善의 경지)에까지 승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盡其心則知其性，知其性則知天矣”<sup>26)</sup>라는 말이 성립된다.

이러한 大인의 길은 죽음까지도 非本質의이고 外的인 요소에 지나지 않을 만큼 인간 本然의 길이다. 그러므로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修身을 하고 죽음을 기다린다”<sup>27)</sup> “道를 다하고 죽는 것이 正命이다”<sup>28)</sup> 이러한 大인의 길에는 그 자체 이외의 어떠한 것도 요청되지 않고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 8. 思誠의 人之道와 宇宙와의 合一

4章에서 「誠者는 天地道」라 하였다. 그런데 誠은 現實의 人間에 대해서는 당위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孟子는 “思誠者，人之道”<sup>1)</sup>라고 말한다. 〈中庸〉에는 “誠之者，人之道”<sup>2)</sup>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誠者 不勉而中，不思而得，從容中道，聖人也，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sup>3)</sup>라는 말이 이어져 있다. 朱子의 이글에 대한 주석을 보면 「誠」과 「誠之」의 의미와 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誠은 眞實無妄을 말하는 것이니，天理의 本然이요，誠之는 아직 眞實無妄하지 못해서 바로 實眞無妄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人事의 當然이다. 聖人の 德은 淳然히 天理인자라 眞實하고 虛妄함이 없어 思와 勉을 기다리지 않고 從容히 道에 맞으니 곧 또한 天之道다. 聖에 아직 이르지 못해서는 人欲의 私가 없을 수 없어 그 德됨이 다 眞實하자는 못하기 때문에 思하지 않고는 엄을 수 없으니 반드시 善을 擇한 後에야 善에 밝을

23) “告子，上 11.

24) “離婁，下 12.

25) “盡心，上 19.

26) 孟子，盡心，上 1.

27) 孟子，盡心，上 1.

28) “盡心，上 2.

1) 離婁上 12.

2) 中庸 20章 10.

3) 同上.

수 있고 勉하지 않고는 맞을 수(中)는 없으니 반드시 굳게 잡은 뒤에야 自身을 誠케 할 수 있으니 이 것이 곧 이른바 人之道다”<sup>4)</sup> 이상의 해설에서 「誠之」와 「思誠」의 궁극은 「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의合一된 狀態는 어떠한가? “오직 天下의 至誠이어야 性을 다할 수 있고, 性을 다할 수 있으면 人之性을 다할 수 있고, 人之性을 다할 수 있으면 物之性을 다할 수 있고, 物之性을 다할 수 있으면 天地의 化育을 도울 수 있으며, 天地의 化育을 도울 수 있으면 天地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게 된다”<sup>5)</sup> 이러한 상태는 생성발전하는 宇宙와 주체적 인간이合一된 狀態이다, 여기에서 「中」으로서의 人間의 性은 天下의 大本이 되며, 「和」로서의 그것의 발현은 天下의 達道가 된다. 前자는 體가 되고 後자는 用이 된다. 그러므로 孟子는 “萬物皆備於我矣”<sup>6)</sup> “夫君子 所過者 化, 所存者 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sup>7)</sup>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思想은 形而上學의in 客觀的 實在論과 道德의in 主觀的 觀念論의合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9. 浩然之氣

孟子는 「浩然之氣」를 말함으로써, 宇宙와合一까지 할 수 있는 人間을 主體의in 측면에서 보다 강조하며, 인간을 外的인 모든 구속을 강력하게 극복할 수 있는 우월한 존재로 올려 놓는다.

그러면 “浩然之氣란 무엇인가?”<sup>1)</sup> 그것은 至大至剛하여 올바로 기르고 害치지 않으면, 하늘과 땅사이에 가득차게 되는 것이다.”<sup>2)</sup> 孟子는 인간의 本性은 대낮의 혼란함에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平旦之氣」 또는 「夜氣」라고 말한다.<sup>3)</sup> 인간의 本質을 실현한다는 것은 일면 그러한 氣를 기른다는 것이다. “浩然之氣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친근한 平旦之氣라고 孟子가 美的으로 표현한, 우리 내부의 「廣大한 영혼」이다. 그러한 氣와 영혼을 대낮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고 보존하는가의 문제, 혹은 어린아이의 따뜻하고 善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人生을 통하여 지켜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道德의in 문제이다.”<sup>4)</sup> 그러나 인간이 그 문제를 완성예로 이

4) 中庸章句 20章 10.

5) 中庸 23章.

6) 孟子, 鑿心, 上 4.

7) ” 鑿心, 上 13.

1) 孟子, 公孫丑, 上 2.

2) 同上.

3) 孟子, 告子, 上 8.

4) The Wisdom of China & India. Lin Yu-Tang.

## 哲學論究

끌어 간다면, “浩然之氣는 宇宙와 동일한 人間의 偉大한 氣象이 된다”<sup>5)</sup> “그 것은 戰士의 氣像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人間과 宇宙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超道德的인 價值다”<sup>6)</sup>

浩然之氣는 宇宙의 최고의 原理인 道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心情의 규제적인 原理로서의 義는 그것을 낳을 수 있는 必要條件이다. “義와 道를 통일하면(配義與道), 浩然之氣는 얻어지면, 그렇지 못하면, 고기가 腐敗하면 배가 쑥 들어가듯이 氣가 消盡된다.”<sup>7)</sup>

浩然之氣는 길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自然스러워야 하며 人爲的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 그렇지만 道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義에 따라 行爲한다면, 얻어질 수 있으며, 결과나 효과에 대해 걱정을 않고서 자연히 부단하게 修行해 나간다면 얻어지는 것이다”<sup>8)</sup>

浩然之氣에 대한 맹자의 말은, 人間과 광막한 宇宙와의 合一을 연상시키며 어떠한 外的인 條件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리고 가장 觀念論的일 때 가장 생기었고 강렬한 人間像을 보여준다.

## 10. 人性에 대한 論爭과 性善

이제까지의 모든 말들에서 인간의 本性이 가치에 있어서 善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시사되었다. 만일 인간의 性이 惡하다면, 儒家의 모든 理念은 그근거를 잃어버린다. 유가사상가가 되려면, 인간의 人欲이 惡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性이 惡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孟子는 人性은 先天的・적극적으로 善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人性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장이 있었다.

(a) 告子는 인간의 本性을 「生之謂性」이라고 보고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性은 流水와 같은 것이며 杞柳와 같은 것”<sup>1)</sup>이라고 한다. 그것은 自然의 原理이기 때문에 “性은 無善, 無不善”<sup>2)</sup>이다. 善과 惡은 教育이나 習慣등에 의해서 後天의 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人性으로써 仁義로 만드는 것은 杞柳로 植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sup>3)</sup> 湍水는 東方으로 흐르면 東流하고 西方으로 흐르면 西流한다”<sup>4)</sup>”

5)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Fung Yu-Lan.

6) Ibid.

7) 孟子, 公孫丑, 上 3.

8) 同上.

1) 孟子, 告子, 上 2.

2) " 告子, 上 6.

3) 孟子, 告子, 上 1.

4) " 告子, 上 2.

이러한 告子의 理論은 孟子와 크게 대립된다. 孟子에 입각한다면, 그의 人性論은 양립할 수 없는 人間의 本來的인 것과 自然的인 產物 사이의 유추를 非論理的으로 제시한다. 告子에 대한 비판은 이 章의 마지막에서 기술될 것이다.

(b) 인간의 本性은 “可以爲善, 可以爲不善”<sup>5)</sup>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인간은 外的인 條件에 불가피하게 규된 정다는 결정론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武가 興할 때는 백성이 善을 좋아하였고, 幽厲가 興할 때는 백성은 暴惡을 좋아하였다”<sup>6)</sup> 孟子는 이러한 견해에 現實的으로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惡하게 되는 이유는 그 本性이 惡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c) 인간 가운데는 性이 善한 者도 있고 不善한 者도 있다<sup>7)</sup>는 이론이 있었다. “그러므로 堯가 임금일 때에 象이 있었고 褒謗가 아버지일 때 舜이 있었으며, 紂를 兄의 아들로 삼고 또 임금으로 하였을 때, 微子啓와 王子比干이 있었던 것이다”<sup>8)</sup>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性의 보편적 善을 인정치 않는 것이며 盡心의 修行을 무의미하게 한다. 惡한 性의 소유자는 善하게 될 수 없는 죽명에 있다.

以上의 세 가지 理論은, 善이 의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의 절대적 필연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우연적인 조건에 휩쓸려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倫理的 絶對論을 파괴하는 것이며, 따라서 올바른 도덕적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부닥치는 혼란한 세계에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人欲의 體係로서의 당시의 現實을 안일하게合理化하는 것으로서, 孟子의 理念에 입각한다면 그것들은 허위 도덕판단이다.

그러므로 公都子는 묻기를, “今日 性이 善하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저들이 모두 허위인가요?”<sup>9)</sup> 孟子는 대답하기를, “그情으로 보면, 善할 수 있는 것이니 그래서 善하다고 하는 것이다.”<sup>10)</sup> 여기서 情은 무슨 이미인가? 〈論語〉에는 君子가 힘쓰면, 情을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며, 〈大學〉의 「無情者」의 情을 朱子는 「實」이라 주석하며, 또 그의 말에 의하면, 性은 心之理 情은 心之事다. 이상에서 그것은 「性之動」이다. 즉 情은 性의 發顯인 것이다 이것이 孟子의 情의 의미다. 그것은 「欲」과는 다른, 참된 情이다. 「欲」은 情

5) ”告子, 上 6.

6) 同上.

7) 同上.

8) ”

9) 孟子, 告子, 上 6.

10) 同上.

## 哲學論究

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性이 惡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欲」을 인간의 性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孟子는 말하기를 “맛과 입파의 관계, 빛과 눈파의 관계, 냄새와 코파의 관계, 安佚과 육체와의 관계는 타고 난 本性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命이 있어 자기맘대로 안되는 것이다. 爵子는 그것을 性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仁와 父子와의 관계, 義와 君臣과의 관계, 禮와 賓主와의 관계, 智와 賢者와의 관계, 聖人와 天道와의 관계에는 물론 命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는 보편적인 性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爵子는 그것을 命이라 하고, 버리지 않는다.”<sup>11)</sup>

欲과는 관계가 없는 性의 반영인 情의 의미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性은 本來로 善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가질 수 있다.

### 11. 孝悌와 仁義 및 仁의 실현

그런데 “孟子는 性이 善하다고 말할 때마다 堯舜을 만한다.<sup>1)</sup>” 또 그는 “堯舜은 性者”<sup>2)</sup>이며 “聖人과 나와는 同類<sup>3)</sup>”라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나 저절로 性者가 되는 것이 아니다. “道는 大路와 같아서 어렵지 않으니, 求할 수 있으며 求해야 한다. 스승은 어데든지 있다. 道는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그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4)</sup> 다시 말하면 인간이 求하여 行하여야 할 “道는 孝悌이며, 이것은 바로 堯舜之道다”<sup>5)</sup>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가정이며, 가정의 중요한 구성분자는 父母兄弟다. 父母를 사랑하는 道가 孝이며 兄弟가 서로 사랑하는 道가 悌다. 그러면 어떻게 孝와 悌를 行하여야 하는가? 孔子는 孟懿子의 孝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기를 “無違”<sup>6)</sup>라고 하고, “後에 또 말하기를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라고 하였다”<sup>7)</sup> 이뜻은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 禮로써 制裁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에 禮는 行爲의合理的準則이 된다. 따라서 孝는 부모에 대한 사랑의合理的行爲다. 兄弟사이에서도 悌는合理的行爲다.

그러나 이러한 行爲는 形式的으로合理的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뿌리를

11) 孟子, 盡心, 下 24.

1) " 滕文公, 上 1.

2) " 盡心, 下 32.

3) " 告子, 上 7.

4) 孟子, 告子, 下 12.

5) 同上.

6) 論語, 爲政 5.

7) 同上.

## 古代儒家의 形而上學과 道德哲學에 근거한 孟子의 理念에 대한 論考

내려야 할 보다 근본적인 德은 仁이다. 인간내면의 仁의 自然스러운 發路가 근거지워주지 못하는 德과 行爲는 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內外가 잘 통일되어야 인간은 道德的이 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行爲란 孝悌로부터 擴充되어 나와서 자기를 克服하고 禮로 둘 아가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孔子는 “君子는 먼저 本에 힘써야 되거니와 本이 서야 道가 생겨난다. 孝와 悌가 仁之本이다”<sup>8)</sup>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孟子는 말한다. “仁之實 事親 是也, 義之實, 從兄 是也,”<sup>9)</sup> 이 상의 말에서 孝子는 仁義를 堯舜之道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舜은 庶物에 밝고, 人倫을 살펴 仁義에 따라 行하였지 그것을 억지로 行한 것은 아니다”<sup>10)</sup>

그러면 仁義란 무엇인가? “仁은 人心이요, 義는 人路다”<sup>11)</sup> 王子塾이 선비의 하는 일을 孟子에게 물었을 때, 그는 “뜻을 고상하게 가지는 것(尙志)”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尙志」란 무엇인가고 묻자 孟子는 “仁義일 뿐이니, 無罪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죽이는 것은 仁이 아니며, 제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것은 義가 아니니, 어디에 居하는가 하면, 仁이 바로 그곳이며, 갈 길이 어데냐 하면 義가 바로 그길이다.”<sup>12)</sup> 그러므로 “仁은 人之安宅이요, 義는 人之正路다.”<sup>13)</sup> “居仁由義하면 大人之事가 갖추어진다”<sup>14)</sup> 그러므로 “仁은 天下之廣居이며, 義는 天下之大道다”<sup>15)</sup>”

仁義가운데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仁이다. 이것은 周易의 元으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仁은 「天地之生物之心」으로서 天道의 德인데, 그것을 인간은 天으로부터 賦與받고 있다.

仁은 義禮智와 함께 단순한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가치들을 包攝하고 통일하는 人間性의 本質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仁이 없다면 인간이라는 범주는 없어진다. 말하자면 仁은 人道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仁也者・人也・合而言之 道也”<sup>16)</sup>이다. 孔子도 仁은 人이라고 한다. 이렇게 仁을 人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率性의 道는 인간에게서 잠시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中庸〉의 의미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8) 論語, 學而 2.

9) 孟子, 離婣, 上 27.

10) 孟子, 離婣, 下 18.

11) “告子, 上 11.

12) 孟子, 睞心, 上 33.

13) “離婣, 上 10.

14) “離心, 上 33.

15) “滕文公, 下 2.

16) 孟子, 睞心, 下 16.

仁의 실현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적이 되며, 인간관계의 本質은 투쟁이 아니라 사랑(愛)으로 된다. “仁者・愛人”<sup>17)</sup>이다. “仁者는 그 사랑하는 바로써 사랑하지 않는 者에게까지 미치며, 不仁者는 그 사랑하지 않는 바로써 사랑하는 者에게까지 미친다”<sup>18)</sup> “樊遲가 仁을 물었을 때에도 孔子는 「愛人」이라고 대답하였다”<sup>19)</sup> 여기서 愛는 仁에 대해서는 行爲이며 기능이다. 仁은 愛에 대해서는 原理이며 本質이다. 그런데 仁은 自己愛나 感性的인 기호나 충동에 기인하는 主觀的인 原理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서, 우연적인 條件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현되어야 하는 보편적 必然性을 지닌다. 그러므로 “仁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他人도 세우며, 자기가 達하려고 하면 남도 達하게 하는 것이다”<sup>20)</sup> “자기를 극복하고 禮로 돌아가는 것이 仁이다”<sup>21)</sup> 소극적으로는 “自己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서는 안되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말들을 孔子는 “인간이 일생을 두고 行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恕」라고”<sup>23)</sup> 해석하였다. 결국 仁의 外的인 발현을 「恕」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仁은 主體의이고 개별적인 인간성의 內的인 원리이기 때문에 「恕」가 그 진정한 의미와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內的인 充實, 즉 「忠」을 必要로 한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行爲는 그 道德의인 價值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君子는 그러한 문제를 평생토록 걱정하게 된다”<sup>24)</sup> 만일 「忠」이 결여되면, 그는 진정한 人間으로부터 떨어져서, “妄人”<sup>25)</sup>이 되어 禽獸와 별 차이 없게 될 것이다”<sup>26)</sup>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反省해 보아도 內的充實이 되어 있어야 한다.”<sup>27)</sup> 다시 말해서 「忠恕」, 「內外」는 서로 통일이 되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는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會參이 「忠恕」로 해석한 孔子의 道는 “一以貫之”<sup>28)</sup>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內的인 근본적인 가치(仁)는 天道의 本質이다. 天道는 仁을 통하여 宇宙안에서 自己를 實現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自己實現은 天道의 本

17) 孟子, 離婁, 上 28.

18) " 鑿心, 下 1.

19) 論語, 領淵 22.

20) 論語, 雍也 26.

21) 論語, 領淵 1.

22) " 衛靈公 23.

23) 同上.

24) 孟子, 離婁, 上 28.

25) 同上.

26) 同上.

27) 同上.

28) 論語, 里仁 15.

## 古代儒家의 形而上學과 道德哲學에 근거한 孟子의 理念에 대한 論考

質을 체득하는 것이며 廣大한 실현이 된다. 〈中庸〉의 “誠은 自己를 成遂시킨 뿐만 아니라, 物을 성수시키는 所以다. 자기를 성수시킴은 仁이요, 物을 성수시킴은 知니, 性의 德으로 內外를 合하는 道다”<sup>29)</sup>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人間은 天道와合一된 상태에서 外內가合一된다. 天人, 內外合一은 인간의 內的 外的인 모든 삶의 양태가 참된 가치를 가지기 위한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이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人間의 外的인 모든 것의 의미의 源泉은 바로 그 人間이며, 동시에 天道이고, 따라서 仁은 內外合一과 天人合一의 근본적인 中心이라는 것이다.

### 맺 는 말

孟子의 理念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誠者는 天之道요, 思誠者는 人之道다. 人之道는 天道로부터 禿受받은 性을 現實에서 실현하려는 부단한 노력이며, 그것은 동시에 氣를 기르는 自然스러운 修行이다. 性은 心의 原理이며, 그 본질로서 四端之德을 가지고 있다. 仁義의 실현은 孝悌가 근본이 되며, 孝悌는 堯舜의 道다. 堯舜은 性은 妄人の 性이다. 즉 人性이다. 人性은 선천적으로 善하다.

孟子는 자신의 理念을 당시의 現實에 절대적으로 必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도 그렇게 느꼈듯이, 계승 발전시킨 자신의 儒家의 理念을 現實에 실현시켜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고 하였던 최후의 투쟁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理念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파괴까지 하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인간에 대한 희망과 신뢰에 넘쳐 있는 孟子도 충만한 가능성의 없는 공허한 미래를豫感한다. “孔子로부터 지금까지는 百여년에 불과하다. 聖人이 세상을 떠난지도 그다지 오래지 않으며, 聖人이 살던 곳(魯)과는 거리가 그렇게도 가까웁다. 그러나 (그의 道)를 보는 자는 없다. 그런즉 앞으로도 또한 없을 것인가 보다”<sup>30)</sup>

29) 中庸 21章. 5.

30) 孟子, 燕心, 下 38.